

‘당권 도전’ 민주 정청래 의원, 전북 방문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자신이 전북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강조하며 도민들과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내란 세력 척결 위한 강력한 리더십 강조

정 후보는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고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내란 세력을 척결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폭풍우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추석 선물로 검찰개혁을 국민들께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1인 1표제 도입 공약

정 후보는 10대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1인 1표 시대”를 제시했다.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도 총선도 지방선거도 모두 1인 1표인데, 민주당이라는 민주당에서 권리당원은 1표, 대의원은 17표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대의원 45명이 갖는 765표가 사실상 국회의원이 통제하는 표라는 비판이다.

▲당원 콘서트로 당원들의 자긍심

전당대회 1인 1표제 도입 · 당원 자긍심 향상 등 내세워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전북 현안 해결 구체적 방안 제시

높여

정 후보는 연말 당원 콘서트 개최를 약속했다.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당원 콘서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1월 말 12월 초 대형 체육관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들은 전당대회 때만 정치적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지지 후보가 달라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며 “하루쯤은 툄 터놓고 즐길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

정 후보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당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라며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당 대표는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할 리 없으니 결국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 싸움을 당 대표가

선봉에 서서 승리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정 후보는 전북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민적 분위기 조성, 고창 서해안 철도 건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한민전 전수 록, 팽택-익산 간 고속도로 공사 재개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의선 금길 공원, 서부 광역철도 등을 유치한 경험이 있어 전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한 달 안에 전북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3부 선거 캠페인으로 깨끗한 정치 실현

정 후보는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3부 선거’로 규정했다. “돈을 쓰지 않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며, 캠프

사무실도 임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사상 당 대표 후보가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정치 개혁”이라며 “이것이 기록으로 남고 전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원 교육과 소통 강화 방안 강구

정 후보는 필요시 교육연수원장을 겸임해 매일 시도를 다니며 직접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가장 큰 요구가 지도부의 소통과 이대명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라며 “강의 전에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10개가 넘는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의 경험과 담을 천 년의 굵은 소나무처럼 지켜온 신념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만호 기자

“전북 예산 정상화시킬 것”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전북이 홀대받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쏟고파
지금이 전북정치 골든타임... 지역 성장에 매진”

“전북이 더 이상 예산에서 소외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 한병도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북 예산의 정상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뤄낸 결과”라며 “향후 전북이 AI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전북의 중점 추진 예산 분야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생명 산업 고도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제조업 체질 개선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북 출신 김운덕 의원이 지명된 점을 강조하며, “SOC 예산 확보에 있어 이제는 전북이 손발이 맞춰 돌파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며 “세미금-포항 간 철도, 고속도로 토지매입 등 국가기관망 연결 사업들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익산이 명실상부한 국가 식품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실패율과 같은 것”이라는 한병도 위원장의 말에는 책임감과 각오가 묻어났다. 그는 “예산 문제는 정책, 인사, 행정 모든 것과 얽혀 있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전북이 더는 홀대받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9년 만에 전북 출신 예결위원장이 나온 지금이 전북 정치의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에너지를 예산 확보와 지역 성장에 쏟아부으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예결특위 · 윤리특위 구성

남원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지홍 의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윤지홍 의원, 부위원장에 윤지홍 의원, 부위원장에 윤지홍 의원이 선출되고, 위원에 김길수 · 김정현 · 이미선 · 오현숙 의원이 선임, 내년 6월까지 임한다.



〈예결위원장〉 윤지홍 의원



〈윤리위원장〉 소태수 의원

반사항 및 의원의 자결윤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소태수 위원장은 “의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윤리적 정황을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위촉식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11일 의회 2층 의정실에서 임실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근거해 지난 2023년 7월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원 4명을 연임하고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장종민 의장은 “임실군의회는 청렴한 지방의회를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며 “자문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더욱 견고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의 경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여부 점검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 주요 윤리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임실=진중영 기자

“농업 재해 피해 실질적인 보상 길 열렸다”

민주 이원택 의원 발의 ‘농업민생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법안’ 2건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용으로, 이번 재심의를 통해 다시 통과되면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결됐다”며 “농업 재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업인이 그동안 들인 생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작물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합종의 책임을 농업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 평가인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인력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되어 있어 농어업인을 위한 보다 촘촘한 보상체계가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 재해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업 현장의 절박한 현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농정 변화가 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소위 통과는 전국 최대 농도인 전북에도 의미가 크다. 농업 기반이 큰 지역 특성상,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제도적 지원이 지역 농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회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오늘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책 토론회” | 전북자치도, 14~18일 주요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대변인 김철태, 사진)에서는 7월 셋째 주(14~18일)에 진행되는 주요 일정과 정책 브리핑 계획을 지난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권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5일에는 복지 여성보건국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상반기 복지, 여성, 보건 분야에서의 주요 추진 성과와 하반기 정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해 한 주간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이 진행된다.

화지역 사업모델 발표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모델을 소개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속의 기구’ 출범식도 같은 날 열린다. 이 기구는 10개 모듬으로 구성돼 도내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논의 과정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도는 각 부서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먼저 14일에는 ‘대한민국 특별자치 시도 행정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및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 간의 실질적인 자치 분

17일에는 두 건의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도민안전실은 재난·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새만금해양수산국도 상반기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18일에는 두 가지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